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5. 12. 21(월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저출산아동정책과장 이병우 전문위원 변수정 (Tel. 044-200-2209)
12.21(월) 15시(행사종료)이후 사용			

## 치매, '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'

- 황 총리, 세종시 '성요셉치매센터' 찾아 치매노인 서비스실태 점검
- “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세대, 따뜻하게 돌봐드려야 할 의무 있어”

□ 황교안 국무총리는 12.21(월)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재 치매노인 요양시설인 '성요셉 치매센터'(원장 김경호 신부)를 찾아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.

○ 이번 방문은 12.10 범정부 저출산·고령화 대책을 발표한 후

-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,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시설 치매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
\* '15년 치매노인인구(추계) : 648천명(노인인구 662만명의 9.8%)

\* 65세이상 치매 유병률 : ('13) 9.4%→('14) 9.6%→('15) 9.8%(6.5만명)→('20) 10.4%

□ 이날 성요셉치매센터를 찾은 황총리는 모두 말씀을 통해 “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”고 강조하면서,

- “정부는 저출산·고령화대책과 함께 치매 예방-발견-치료-돌봄 등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, 앞으로 치매환자 보호시설과 치료 병원을 확충하고 가족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, “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세대로서 우리 세대는 인생의 선배를 따뜻하게 돌봐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”면서
  - “치매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걸리 수 있는 ‘나와 우리의 문제’이며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해야할 공동의 문제라고도 강조하였다
  
- 이어서 황총리는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치료 받는 미술치료실, 침실, 물리치료실 등 시설현황도 꼼꼼히 살펴보고 입소노인과 고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위로하였다.
  - 이곳에서 “성요셉센터에서는 이곳이 어르신들에게 “제2의 가정”인 만큼, 편안하게 잘 돌봐 주시고, 행동과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  
- 정부는 2012년 치매관리법을 제정·시행 한 후 예방-발견-치료-돌봄의 치매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,
  -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치매환자 및 가족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.

## 참고 1 노인요양시설 및 성요셉치매센터 현황

### □ 노인요양시설

- 전국 2,713개소, 입소인원 117천명 \* '14.12월
- 적용법령 : 노인복지법 상 '노인의료복지시설'(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)
- 이용대상 :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급식·요양 등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
- 입소자 기준 : 10명 이상
- 지도감독 : 시군구청장
- 인력기준 : 의사 1명(촉탁의 가능),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1명, 사회복지사 1명, 물리치료사 1명, 입소자 2.5명당 요양보호사 1명

### □ 성요셉치매센터

- 시설종류 :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
- 설치일 : 2001. 9. 28
- 운영주체 :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(대표 유흥식 주교)
- 입소대상 : 노인성 질환(치매)으로 요양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  
(현재 42명 입소중, 정원 65명)
- 종사자 : 31명(원장, 사회복지사1, 요양보호사16, 촉탁의2, 간호조무사1, 물리치료사1, 영양사1, 조리사1 등)
- 시설규모 : 총 2,256m<sup>2</sup>(지상 2층, 지하 1층)

## 참고 2 치매 예방 및 보호대책

### □ 국가치매관리체계

- (법적근거) 치매관리법('12.7 시행)
- (지원내용) 치매예방·인식개선·치료관리·돌봄·가족지원 등
- (국고보조) '15년 치매 관련 사업\* 국비 440.3억원, 지방비 245.5억원 소요  
\* 중앙·광역치매센터 운영, 치매진료·약제비 지원 등

### □ 치매 예방체계 강화

-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중심,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\* 집중관리 강화  
\* 경도 인지저하자, 치매진료 중단자, 75세 이상 독거노인
- 치매 파트너즈\* 양성을 통한 치매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
\* 일반인대상, 치매 돌봄 교육이수 후 환자가족 지원 수행('15년 11만 → '16년 50만)

### □ 치매 환자 및 가족돌봄체계 강화

- 치매 노인과 가족 돌봄·지원을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\*  
\* ('14) 1,687개소 → ('18) 2,459개소 → ('20) 3,000개소 확대 목표
- '16년부터 전국 78개의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,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\* 등 관리('16년)  
\* 우울감·불안 등의 정신적 증상, 배회·폭력성 등 행동증상, 망상·환각 등
- 건강보험 일부 비급여 항목(신경인지검사 등) 급여 전환('16년)
- 중증치매 노인 대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서비스 도입('17년), 요양 시설·주야간보호센터 내 치매전담실 설치·운영('16년)  
※ (중증-경증)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 중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절차를 통해 선정
- 경증치매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확대('14.7)
  - 주야간 보호센터 하루 10시간까지 이용, 요양보호사의 방문간호 서비스 및 환자 가족 대상 교육 등